

카자흐스탄, 2024 국정연설의 주요내용과 시사점

- 9월 2일 카심-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이 2024년도 국정연설을 실시함.
 - 토카예프 대통령은 매년 9월 정기의회 개회에 맞춰 국정운영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국정연설을 실시해옴.
 - 2019년 취임한 토카예프 대통령은 2022년 조기대선을 통해 2029년까지 7년 임기를 확정함.
 - 이번 연설에서는 ‘정의로운 카자흐스탄: 법과 질서, 경제 성장, 사회적 낙관주의’를 핵심 가치로 제시함.
- 토카예프 대통령은 경제, 정치, 사회 9개 부문에 걸친 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사회적 불평등 감소와 중산층의 강화를 동반한 경제성장을 강조함.
 - 경제부문에서는 투자·사업 환경 개선, 산업 현지화, 민간 이니셔티브 장려, 인프라 개선 등 기존 정책 방향을 유지하면서 고부가가치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보다 구체화된 방안을 제시함.
 - 2024년 8월 승인된 17개 프로젝트(철강, 정유 및 석유 화학, 비료, 자동차, 관광, 식품공업 분야)를 중심으로 관련 산업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임.¹⁾
 - 정치·사회 부문에서는 교육·보건 서비스 품질 및 인프라 개선, 취약계층 지원, 지방 정부 권한 강화 등 기존의 강조점을 유지하면서 실제 소득과 수요를 고려한 정밀한 사회복지 서비스 시행에 대한 의지를 표명함.
 - 디지털 부문에서는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동시에 사이버 보안 및 관련 범죄 대응, 디지털 시대에 대비한 국민 인식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함.

표 1. 2024 토카예프 대통령 국정연설 분야별 주요 내용

분야	주요 내용
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간의 불균형 해소	- 핀테크 발전을 촉진하는 새로운 은행법 마련 - 안정적인 조세 환경 마련을 위한 세법 정비: △ 투자유치, 안정적인 사업 환경 조성, △ 세무 서비스 전자화를 통한 투명성 제고, △ 세금 인센티브 효과 제고
투자 및 사업 환경 개선	- 심층금속가공, 석유·가스·석탄 화학, 관광, 에너지, 엔지니어링 등 우선 분야 프로젝트 실행 가속화 및 투자 집중 유치 - 국제금융기관이 참여 가능한 대규모 공공-민간 파트너십 프로젝트 식별 - ‘경제 자유화 조치에 관한 법령(2024, 5월 서명)’ 이행을 통한 시장 평등 및 민간 주도권 회복 - 2029년까지 중소기업 경제점유율 15% 달성을 위한 지원정책 마련

1) “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утверждён перечень из 17 крупных проектов с объёмом инвестиций более 15 трлн тенге”(2024. 8. 28), Қамысты ауданының әкімдігі.

산업 잠재력 최대화	- 고부가가치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17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관련 산업 기반 구축, 국내 원자재 및 생산요소 활용 극대화 - (가스) △ ‘중앙아시아-센터’ 가스 파이프라인 용량 확장 및 수송 경로 다변화, △ 신규 가스 매장지 개발, △ Zhanaozen, Kashagan, Karachaganak 가스 처리 공장 건설 가속화
인프라 개선	- (에너지)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국민 투표 실시(10월 6일) - (운송 및 물류) △ 관세 시스템 개정과 철도 개혁 병행, △ 고속도로 건설 및 재건(올해 12,000km 건설·보수 진행), △ 지역 간·지역 내 도로 수리 프로그램 10,000km로 확대, △ 항공 허브 개발(화물 및 국내선) - (디지털) △ 2025년까지 카스피해 통과 광섬유 통신망 설치, △ AI와 E-government 플랫폼 통합, 2025년 국가 인공지능센터 설립, △ 디지털 자산·암호 화폐 채굴 및 거래 관련 제도 개선 - (관개 및 수자원) 저수지·관개 시설 구축 및 현대화, 절수 조치 도입
인적 자본 강화	- 23개 유명 해외 대학을 유치하여 고등교육의 국제화 추진 - 2025년을 근로 직업의 해로 선언, 기술 및 직업 교육 시스템 개혁 - 3년 이내에 노후화된 학교 수리 자금 확보(1,300개 학교 대상)
보건·사회복지를 위한 포괄적 대책 시행	- 통합 국가 의료정보시스템 구축, 의료 교육 품질 개선 및 보조금 차별화를 통해 자격을 갖춘 의료 인력 육성 - 실제 소득 및 필요성을 고려한 취약계층 지원, 2025년 ‘Social Wallet’ 메커니즘 도입
환경 개선 및 존중	- 탄소 배출 모니터링을 위한 현대적인 시스템 구축 - 산림 재생을 통해 생태 균형 유지 및 지속 가능한 사회·경제 발전 보장
공공행정 효율성 개선	- 2025년까지 마을, 구, 도시의 Akim(지방자치단체장) 선출을 직접 선거로 완전히 전환
법과 질서 정립	- (디지털·금융 범죄 대응) △ 금융 지식과 디지털 보안에 대한 기본 교육을 학교 및 대학에서 실시, △ 디지털 기술 및 금융과 연관된 사기 등 범법행위에 대한 단호한 조치

자료: Official website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, State of the Nation Address “Just Kazakhstan: Law and Order, Economic Growth, Social Optimism” (검색일: 2024. 9. 24).

- 또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일이 확정되었고, 수자원 관리 및 삼림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강화가 엿보임.
- 2021년 토카예프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이래 관련 논의가 지속되어 왔으며, 오는 10월 6일을 국민투표일로 지정함.²⁾
- 물 부족, 인프라 노후화로 인한 수자원 손실, 농업용수 확보 필요성과 더불어 홍수 대비 차원의 관개 시스템 및 수자원 인프라 개선을 강조함.³⁾
- 온실가스 배출 감축 측면에서 삼림복원 및 산불방지의 중요성을 언급함.

□ 이번 국정연설은 기존 정책방향을 유지하는 가운데 우선분야를 집중 지원할 수 있는 정밀한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, 원전·디지털·수자원 및 삼림 등 분야에서 우리 정부·기업과의 새로운 협력 기회가 기대됨.

- 토카예프 대통령은 거시경제가 안정되고 산업다각화가 진행 중인 현재 ‘지금, 여기’

2) 토카예프 대통령은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원전 건설을 추진함. 2022년 부지 및 (잠재)기술공급업체를 선정했으나 원전건설에 대한 카자흐 국민의 우려가 큼에 따라 지난해 국정연설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힘.

3) 2024년 3월 시작된 홍수로 카자흐스탄 북부 및 서부 10개 지역(224개 마을, 17,000채의 주택)이 피해를 입고, 약 12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됨. Reliefweb, “Devastating Floods in Kazakhstan: A National Emergency,” 보도자료; “Over 8,000 flood-affected houses in Kazakhstan declared unfit for rebuilding”(2024. 9. 24), Kazinform International News Agency.

- 라는 방침으로 새로운 투자를 유치해 성장 모멘텀을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함.
- 국민투표를 통해 원전 건설이 확정될 경우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, 한국수력원자력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잠재적 기술공급업체 중 하나임.
 - o 한국수력원자력은 중국원자력공업그룹(CNNC), 프랑스 전력공사(EDF), 러시아의 로사톰(Rosatom)과 함께 2022년 잠재적 기술공급업체로 선정되었음.
 - 카자흐스탄이 내년 국가인공지능센터 건설 등을 계획하는 가운데 한국과 AI 교육, 인재양성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 중임.⁴⁾
 - 지난 봄 전례 없는 홍수로 인해 수자원 관리를 통한 재해대비의 시급성이 커진 가운데 기술협력 및 인프라 개선 사업이 대규모로 추진될 예정임.
 - o 카자흐 수자원 및 관개부 장관은 ‘종합수자원개발계획 2024~2028’을 통해 저수지 건설 및 재건(79개), 운하 건설(14,500km), 홍수예보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, 토카예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해당 분야의 투자 잠재력이 높다고 언급함.⁵⁾
 - 탄소배출 감축 측면에서 산림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삼림청은 카자흐 생태천연자원부와 삼림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산불 예방·대응, 피해지역 복원, 연구기관 간 교류 강화에 합의함.⁶⁾

 정동연 전문연구원

4) “우송대, 카자흐서 첨단 AI·빅데이터 교육…현지 정부 적극 지원”(2024. 6. 13), 연합뉴스.

5) “Kazakhstan to launch flood forecasting system by year-end”(2024. 9. 24), SILKWAY.

6) “한·카자흐스탄, 산림협력 확대…연구기관 간 교류도 강화”(2024. 6. 13), 연합뉴스.